



‘보르도 그랑크뤼 1등급의 위엄’

샤또 오 브리옹

Chateau Haut Brion

지역	프랑스 > 보르도 > 그라브		
포도품종	메를로 50% 까베르네 소비뇽 45%		
알코올	13%	용량	750ml
등급	보르도 그랑크뤼 클라쎄 1등급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미디엄-풀 바디의 와인으로 마치 실크와 같이 부드러운 탄닌의 질감과 함께 다채로운 향이 잘 어우러져 마지막까지 인상적인 여운을 남긴다.		



제품설명



미국인이 소유한 와이너리 중에서 유일한 1등급 와인이며 보르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와이너리이다. 그 역사는 15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Jean de Pontac과 결혼한 Jeanne de Bellon이 지참금으로 가져온 포도원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지난 4세기 동안 샤또 오 브리옹의 이름을 더욱 유명하게 한 것은 거처간 소유주들의 이력이 무척 화려하였기 때문이었다. (해군 사령관, 성직자, 정치가, 외교관 공직자등) 프랑스 보르도 지방 메독에서 정한 61개의 최고급 와인 그랑 크뤼 클라쎄(Grand Cru Classe)중 1등급에 속하는 다섯 와인 중, 샤또 오 브리옹(chateau Gaur-Brinn)은 유일하게 메독 지역이 아닌 그라브의 빼빼 레오냥 지역 와인이다. 1855년 메독 와인을 위해 그랑 크뤼 클라쎄를 분류할 당시 화려한 유명세로 인해 유일하게 지역적인 예외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등 유명인사가 사랑한 와인이다.

와이너리



프랑스의 와인 등급은 1855년 파리 세계만국박람회를 기점으로 분류돼 15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지켜져 오고 있는 그랑크뤼 와인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